

소프트웨어산업의 役軍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못할 정보화 사회의 모습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

사무실이 없어지고 공장이 완전 무인화되며 家事운영의 변화 등 가지각색의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열거하면서 소개되고 있다.

미래학자들의 추정이 현실화되는 과도기에 있는듯 하다.

이를 선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도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리 인류의 영원한 꿈인 인간과 동일한 知的수준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창출하는 것도 멀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성 싶다.

그러나 이러한 꿈이 현실로 도래하겠지만 현실에서 발을 떼지 말아야하지 않을까.

현재 대다수의 소프트웨어분야 역군들이 하는 일은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는 작업의 개발·보수·운영에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작은 한분야의 발전이 전체시스템의 생산성에 직접관련되어 그 효율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이상도 좋지만 현실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자세 정립도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소위 技術人들의 속성인 「내가 아는 것을 지키고 고수

황규선
쌍용컴퓨터 이사



하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빠지게되면 현재 대다수 電算部署에서 겪는 고초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은 不問可知라 하겠다. 항상 일에 파묻히고 다람쥐 쳇바퀴돌듯 일매이며 개발보다 보수·유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사용자의 요구가 항상 대기하는 소위 누적(Back Log) 현상이 거의 모든 전산부서에서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기법이나 道具(Tool)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자세가 오늘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남의 장점을 알아내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승화시킬 수 있는가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구한다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발달은 보다 빨리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시야를 넓혀 새로운 도구나 기법의 적용을 시도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 같은 전문인이 취할 태도라 하겠다.